

'3퇴'와 평안

제211기

2015년 5월 13일

'9평 공산당' 책은 진실하고 심도있게 중공의 사악한 본질을 폭로했다. 2015년 5월 5일까지 2억 219만 명의 중국인이 해외 대기원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중공의 당, 단, 대 조직 탈퇴를 성명했다.

대륙 관광객 “저를 먼저 탈퇴시켜 주세요. 가족은 ...”

[밍후이왕] 날씨가 따뜻해짐에 따라 유럽의 관광명소를 찾는 중국 관광객도 많아지고, 3퇴(퇴당, 퇴단, 퇴대)를 권하는 자원봉사자도 많아졌다. 진상을 들은 관광객이 잇달아 3퇴 성명을 했다.

대륙 관광객 “이 대사님께서 사람을 보내 우리를 구해 주는데 편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한 관광객이 자원봉사자에게 어째서 3퇴하면 평안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자원봉사자가 “중공 조직에서 탈퇴한다고 성명하면 당신이 중공의 당, 단, 대 조직에 가입할 때 중공의 혈기(血旗)를 향해 한 맹세를 폐기할 수 있게 되고, 당신의 몸에 찍혀 있던 당, 단, 대 조직의 표기가 지워지게 됩니다. 그래야만 신불이 당신을 보호해 줄 수 있습니다. 신불이 보호해 주는데 당신이 평안하지 않겠습니까?”라고 알려주자 사람들은 연달아 “감사합니다. 당신에게 감사드립니다.”라고 말했고 한 관광객은 “이 대사님께서 사람을 보내 우리를 구



2015년 5월 2일, 타이완 가오슝시에서 2천 명이 넘는 파룬궁 수련생들이 중국인 2억 명의 중공 당, 단, 대 탈퇴를 성원하는 활동을 가졌다.

해주는데 평안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라고 말했다. 이리하여 30명이 넘는 관광객이 기꺼이 3퇴 성명을 했다.

노 간부들이 함께 탈당하다

하루는 자원봉사자가 국급 간부들로 구성된 대륙 관광객들을 만났다. 그들은 ‘저우융캉이 후진타오와 시진핑을 암살하려는 내막’이란 진상자료를 보고 “저우융캉이 무엇 때문에 후진타오와 시진핑을 암살하려 했나요?”라고 물었다. 자원봉사는 “그들 두 사람을 믿지 못한 장쩌민이 보시라이, 저우융캉, 쉬차이

허우 등 최측근들에게 권력을 넘겨 파룬궁에 대한 박해를 계속 유지함으로써 자신이 청산당하는 것을 피하려 했습니다.”라고 알려 주었다. 자원봉사는 또 “후진타오, 시진핑과 보시라이, 저우융캉의 대립은 파룬궁 문제입니다. 장쩌민은 파룬궁을 박해하고, 파룬궁 수련생의 장기를 생체 적출하는 반(反)인륜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시진핑이 장쩌민의 죄를 뒤집어 쓰려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진핑과 장쩌민의 싸움은 사활을 건 싸움입니다.”라고 알려 주었다.

캐나다 총리가 파룬따파 홍전 23주년을 축하

[밍후이왕] 2015년 5월 13일은 파룬따파가 전 세계에 널리 전해진 지 23주년이 되는 날이다. 이에 캐나다 총리 스티븐 하퍼는 파룬따파 학회에서 한글을 보내 파룬따파 전파 23주년을 축하했으며, 파룬따파 학회가 수련과 진선인(眞善忍) 이념을 캐나다 시민들과 함께 나누는 것에 찬사를 보냈다.

축하 서신은 다음과 같다.

“나는 파룬따파의 전 세계 홍전 23주년 축하 기념식에 참가한 모든 분들에게 가장 뜨거운 축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 특별한 날은 전 세계 파룬궁 수련생들이 파룬따파가 가져다 준 복지를 부각시키는 기회입니다. 진, 선, 인(眞善忍)의 원칙을 선양함으로써 파룬궁 수련은 캐나다 국민들로부터 충분한 인정을 받았습니다. 나는 캐나다 사람들과 함께 수련하는 캐나다 파룬따파 학회를 친양합니다.

캐나다 사람들은 아주 운이 좋게도 세계의 많은 문화와 종교를 충분히 포용할 수 있는 국가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캐나다는 또한 종교의 자유,



캐나다 스티븐 하퍼 총리와 그의 축하 편지

인권과 법치 방면에서 세계의 지도자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정식으로 종교자유 사무실을 설립함으로써 캐나다의 이런 가치관을 전 세계에 널리 알리게 된 것을 아주 기쁘게 생각합니다.

캐나다 정부를 대표해, 아름답고 즐거운 경축일을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의 우정과 선한 염원이 항상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스티븐 하퍼 캐나다 총리

자원봉사자는 관광객들에게 작년에 시진핑 부부가 뉴질랜드를 방문했을 때 파룬궁 수련생들이 ‘파룬따파 하오’ 현수막을 들고 서있는 것을 보고 차 안에서 미소를 지으면서 손을 흔들어 인사를 했다고 알려주었다. 자원봉사자는 “당신들은 모두 노 간부이기에 나보다 공산당의 내막을 더 똑똑히 알고 있습니다. 지금 누가 장쩌민을 욕하지 않고, 공산당을 욕하지 않습니까? 아직도 중공이 해체된다는 것을 믿을 수 없습니까?”라고 설명하자 이 노인들은 모두 머리를 흔들었다. 자원봉사자가 “그럼 좋아요. ‘마레 사령’을 쫓아내고 신불의 보우를 청합시다. 내가 여러분에게 가명을 지어 대기원 사이트에서 탈당 성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재난을 피하고, 평안을 보장받고, 즐거운 만년에 아름다운 미래를 선택하세요.”라고 말하자 첫 사람이 “탈퇴하겠습니다.”라고 말했고, 이어 한 사람이 “당신은 영웅입니다, 앞장서 탈당하세요!”라고 말했다. 잇따라 한 사람을 제외하고 모두가 탈당한다고 명확히 태도를 표시했다.

자원봉사자는 또 다시 노 간부 세 명을 만났는데 한 사람은 부급(副部級)이고, 한 사람은 정국급(正局級)이고 또 한 사람은 전문가였다. 세 사람은 진상을 알게 된 후 모두 3퇴했다.

“저를 먼저 탈퇴시켜 주세요. 가족은 제가 돌아가서 탈퇴시키겠습니다.”

70세가 되어 보이는 한 선생은 진상자료를 받아 쥐고 “나는 몇십 년 된 당원입니다. 탈퇴하겠습니다. 우리 집은 아들, 며느리와 함께 대가족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잘 말해서 탈퇴시키겠습니다. 저를 먼저 탈퇴시켜 주세요. 가족은 제가 돌아가서 탈퇴시키겠습니다. 당신처럼 그들에게 가명을 지어주어 사이트에서 탈퇴시키겠습니다.”라고 말했다.

현기증이 치료하지 않고도 나아져 많은 사람에게 파룬궁의 기적을 실증

[밍후이왕] 2011년 중국의 새해를 보내고 난 후 지친 아내는 심각한 현기증을 앓게 되었다. 일 년이 넘게 심혈관 전문병원을 찾아 치료하다가 또 뇌신경과를 찾아 치료를 받기도 했다. 30가지의 물리적 측정을 했고, 70가지가 넘는 화학적 측정을 했다.

마지막에는 한의사를 찾아 보았고, 민간의 명의와 민간 비법을 써 보기로 했다. 시간과 돈을 허비한 것은 말하지 않더라도 모두 효과가 없었고, 진단이 제각기 달라 확진을 얻을 수 없었다. 살아남겠다고 한약을 과다 복용해 위에 천공이 생기고 생명이 위독하게 되었다.

친척 친구와 이웃들도 아내의 병을 걱정해 음식을 만들어 주었다, 안마해 준다거나 위로해 준다면서 분주하게 도와 주었지만 별 방법이 없었다.

파룬궁을 수련하는 친구가 전법륜과 파룬궁 진상 시디를 보



2015년 5월 13일은 파룬따파 흥전 23주년 및 제16회 세계 파룬따파의 날이다. 전 세계 파룬궁 수련생과 선량한 사람들은 매년 5월이면 이 감사한 날을 경축한다. 위 사진은 5월 3일, 타이완 파룬궁 수련생들이 '5.13 세계 파룬따파의 날'을 미리 경축하면서 단체연공을 하는 장면이다.

내왔다.

진상 시디를 열심히 보던 아내는 절반도 보기 전에 일어나 앉겠다고 했고 신기하게도 앉아서 끝까지 보았다. 2시간 동안 눈물을 흘리면서 보던 아내는 전신이 따뜻해지고 편안해졌으며 현기증도 나지 않았다. 파룬따파의 기적을 본 아내는 주저하지 않고 파룬따파를 수

련할 것을 결심했다.

수련함에 따라 기적이 발생했다. 현기증이 완전히 없어졌고, 20년 넘게 그를 괴롭히던 편두통도 나았으며, 자궁근종이 사라졌고, 누렇던 손바닥이 불그스름해졌으며, 체중이 오르고, 허리가 곧게 펴졌고, 걸음걸이가 가벼워졌다. 더는 어떤 약도 먹지 않게 되었다.

저우융캉은 온 집안이 뒤집혔고, 장쩌민은 법망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밍후이왕] 2015년 4월 3일, 중공은 '불법으로 타인으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은 죄', '권력 남용 죄', '의도적으로 국가기밀을 누설한 죄'로 저우융캉을 텐진 제1중급 법원에 기소했다.

비록 죄명에 생체장기적출 반인류 죄행은 포함되지 않았지만, 저우융캉이 종신형 혹은 사형으로 인생의 종말을 맞기에는 충분하다. 이에 앞서 그의 가까운 친구, 옛 친구들이 이미 낙마했고, 파룬궁을 잔혹하게 박해했던 악마 저우융캉은 결국 이렇게 온 집안이 뒤집히는 비참한 끝장을 보게 되었다.

또 천지간, 인간세상에서 유형무형의 법망이 저우융캉의 배후세력 장쩌민을 향해 펼쳐졌고, 갈수록 죄어들고 있다. 이 과정에서 파룬궁을 박해한 고수 장쩌민은 최후의 발악을 하겠지만, 발악할수록 법망에 가까워 진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장쩌민 범죄 집단은 1999년 파룬궁에 대한 박해를 시작할 때 '3개월 안에 파룬궁을 소멸하겠다'고 날뛰었다. 야망을 달성하지 못하게 되자 천안문 분신자살이라는 자작극을 만들어 세인을 우롱하고 증오를 선동했다.

거짓말이 폭로되자 조급해진 저우융캉과

보시라이 등의 망나니 무리는 공공연히 인류도덕의 최저선에 도전하면서 발광적으로 파룬궁 수련생의 장기를 생체 적출해 폭리를 취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2014년 '파룬궁 박해 추적 국제조직'이 확보한 해방군 총후근부 원위생부장 바이수중(白書忠)의 육성 녹음은 중국대륙 범위에서 파룬궁 수련생의 장기를 생체 적출한 반인류 범죄가 바로 장쩌민의 '지시'에 따른 것임을 증명했다.

한 때 풍광이 휘황했던 장쩌민, 저우융캉, 보시라이 무리는 국가 정권을 장악하고, 여론과 폭력도구를 통제하기만 하면 그들에게 대적할 사람이 없을 것이라고 여겼다. 그러나 그들은 빚을 조만간에 갚아야 한다는 것과, 선악에 반드시 응보가 있다는 하늘의 이치를 벗어나지 못함을 생각지 못했다. 직위가 높고 권력이 커던 저우융캉과 보시라이의 끝장은 사람들의 예상 밖이었지만, 사실 모두 천리(天理)의 제약을 받고 있다.

저우융캉, 보시라이, 쉬차이허우, 쑤룽, 왕리쥔, 리둥성 등 파룬궁을 잔혹하게 박해한 범죄 집단의 두목들이 하나하나 낙마함에 따라 한 때 기고만장해 파룬궁 박해에 참여했던 장쩌민 집단의 인물들은 날이 갈



2015년 4월 26일, 홍콩에서 거행된 반(反)박해와 2억인의 중공 당, 단, 대 탈퇴를 성원하는 대행진은 많은 시민과 대륙 관광객의 눈길을 끌었다.

수록 불안에 떨고 있다.

'다음 차례는 누굴까'라며 두려움에 떠는 고통은 바로 파룬궁 수련생에게 공포를 안겨준 죄악에 대한 응보이다.

저우융캉의 운명은 아직도 잘못을 고집하면서 파룬궁을 박해하고 있는 추종자들에게 하늘이 주는 경고이다.

- '즉시 박해를 멈추라. 하늘이 주는 기회는 많지 않다!'